ISSN 2508-2817 KiDRS Korea Institute of Design Research Society 통권 36호, 2025. Vol.10, No.3

지역 문화 생산 기반 공간 재생 모델 개발 연구

중국 죽예촌(竹艺村)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patial Regeneration Model Based on Local Cultural Production

Focusing on the Case of ZhuYi Village (竹艺村) in China

주 저 자 : 두문원 (Du, Wen Yuan) 동의대학교 디자인조형학과 석사과정

교 신 저 자 : 강재철 (Kang, Jae Cheol) 동의대학교 디자인조형학과 교수
kang@deu.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5.3.811

접수일 2025. 08. 19. / 심사완료일 2025. 08. 27. / 게재확정일 2025. 09. 08. / 게재일 2025. 09. 30.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 alternative direction for sustainable spatial regeneration based on local cultural assets. By integrating Henri Lefebvre's Theory of the Production of Space and cultural production theory, the study proposes a "Cultural Production-Based Spatial Regeneration Model." Through theoretical research, the model identifies the three dimensions of space—perceived, conceived, and lived space—and analyzes the interactions between cultural agents and spatial elements. As an empirical case, the study examines ZhuYi Village (竹艺村) in Sichuan, China, where traditional bamboo crafts have been revitaliz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exhibition, hands-on learning, education, and artistic practices. The collaboration among local residents, designers, and institutions has restored the village's sense of place and cultural identity. This research views space not as a physical backdrop but as the outcome of socio-cultural practices, and aims to provide both theoretical insights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future place-based regeneration policies.

Keyword

Production of Space(공간생산이론), ZhuYi Village(죽예촌), Cultural Spatial Regeneration(문화공간재생)

요약

본 연구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공간 재생의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공간생산이론'과 '문화생산이론'을 융합한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생산 기반 공간 재생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실재적 공간, 기호적 공간, 함축적 공간의 3차원 공간 구조와 문화 생산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으며, 실제 사례로 중국 쓰촨성 죽예촌을 선정하여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죽예촌은 전통 죽공예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간 프로그램(전시, 체험, 교육, 예술 창작 등)을 구성하고, 지역 주민 및 외부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장소성과 공동체 정체성을 회복한 사례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공간을 물리적 대상이 아닌 사회문화적 실천의 결과로 인식하며, 향후 지역 중심의 공간 재생 전략 수립 및 정책 제언에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 목적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2-1. 지역 재생과 공간생산이론
2-2. 공간생산이론에 대한 이해
2-3. 지역 문화 생산 기반 재생 요소 제시

3. 중국 죽예촌의 공간 재생 사례 분석

3-1. 중국 죽예촌에 대한 소개
3-2. 죽예촌의 제생 현황 분석
3-3. 분석 결과

4. 대나무 공간 재생의 적용 방안

4-1. 재생 방안 개발
4-2. 한국 대나무 공간 재생에 시사

5. 결론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글로벌화와 현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 고유의 문화는 전례 없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과거 도시와 농촌의 공간 재생은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상업적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러한 방식은 지역 문화의 내적 가치와 장소성 회복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문화 주도형 재생' 개념이 부각되었고, 문화 창조 산업의 도입은 전통 마을과 구도심의 재생 전략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Zeng et al., 2020). 문화의 공간적 이식은 장소에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부여하며, 지역 정체성과 감성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동시에 문화의 소비재화, 표준화 경향으로 인해 장소 고유의 특성과 경험이 상실되는 '비장소성(placelessness)' 현상 또한 발생하고 있다(Smith,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재생적 디자인(regenerative design)'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간과 자연 시스템의 공진화를 지향하는 접근으로, 건축 행위 자체가 특정 장소에서 사회적·생태적 변화를 유도하는 촉매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생'은 단순한 건물 복원이 아니라, 장소의 고유성과 맥락을 고려한 관계 중심의 설계 전략으로 이해된다[1].

Ward와 Hubbard(2019)는 도시 재생 정책에서 '공식 문화'가 지나치게 강조되며, 일상적이고 민중적인 창의성이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는 문화 다양성과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재생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Wilks-Heeg와 North(2004)는 지역 특산물과 전통기술을 중심으로 한 문화 생산이 도시 및 농촌 재생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지역 가치의 통합적 기획과 시너지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농촌 맥락에서 볼 때, 산과 물은 주민들의 생존과 생산 활동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기능적, 지리적, 정신적 의미를 함께 내포하는 고유한 장소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문화경관은 '농촌 산업 유산'이라는 유형 자산으로 남게 되며, 그 보존과 재활용은 오늘날 세계 농촌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2].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지역 문화 생산을 기반으로 한 공간 재생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문화의 소비화를 넘어, 지역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재생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학문적 이론뿐 아니라 실천적 가치 측면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특히 죽예촌과 같은 전통 수공예 중심 마을의 사례는, 문화 생산과 공간 구조 간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본 연구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죽예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죽예촌 공간 재생 전략과 문화 생산 가치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혁신적 디자인, 생태 통합, 주민 참여 측면의 실천적 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지역의 대나무 문화유산의 현대적 해석과 전승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 등 유사 지역이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대나무 공간 재생 모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글로벌화와 도시의 현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공간 재생 과정에서 지역 고유의 문화는 점차 주변화되고 동일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죽예촌과 같이 전통 수공예를 중심으로 한 문화 기반 마을은 단순한 유산 보존의 의미를 넘어, 지역 정체성과 공간 구성의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지역 문화와 공간 재구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문화 생산을 중심으로 한 재생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가) 이론적 틀 정립: 공간 생산 이론과 문화 생산 이론

1) Cole, R. J, 'Regenerative design and development: current theory and practice', Building Research & Information, 2012, Vol.40, No1, p.1-6.

2) Xiong, X., Wang, Y., Pesoa-Marcilla, M., & Sabaté-Bel, J, 'Dependence on Mountains and Water: Local Characteristics and Regeneration Patterns of Rural Industrial Heritage in China', Land, 2022, Vol.11, No.8, p.1341.

을 융합하여, 지역 문화 가치와 주민 참여 구조, 공간 변환 논리를 설명할 수 있는 재생 분석 프레임을 제시한다.

나) 모델 개발: 이론 통합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 생산을 중심 동력으로 하는 공간 재생 모델을 구축하고, 그 구성 요소와 경로, 작동 특성을 구조화한다.

다) 실증 적용: 중국 죽예촌 사례를 통해 모델의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나무 문화 공간 재생에의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목적을 따라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 고찰, 분석 모델 개발, 사례 분석의 세 단계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첫째, 이론 고찰 및 평가 지표 도출 단계에서는 공간 생산, 문화 재생, 지역 문화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개념과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문화 기반 재생의 분석 지표 및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후속 모델 구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둘째, 모델 구성 단계에서는 르페브르의 공간 생산 삼분법과 문화생산 이론을 통합하여, 공간적 차원(형태와 감각), 문화적 차원(비물질 유산과 창의 전환), 사회적 차원(주민 참여와 정체성)의 세 축을 중심으로 분석 틀을 개발하였다. 이 틀은 이후 사례 분석의 기준이 된다.

셋째, 사례 적용 및 검증 단계에서는 중국 죽예촌을 중심으로 공간 구성, 문화 생산 구조, 주민 참여 방식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 대나무 공간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제안된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도출하고, 보다 실천적인 재생 전략과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본 연구는 문화 중심 공간 재생 연구의 이론적 확장을 꾀함과 동시에, 지역 고유 문화의 지속 가능성과 공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역 재생과 공간생산이론

기존의 도시 및 공간 연구에서는 공간을 단순히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립적인 배경또는 물리적 장소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회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1974년 저서 『공간의 생산(La Production de l'espace)』에서 이러한 기존의 관점을 비판하며, 공간을 사회적 관계 자체의 구성 요소이며 사회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산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공간은 단지 무대나 배경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 문화적 담론이 투영된 실천의 장이다. 즉, 공간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질서가 물리적 형태로 가시화되는 사회 질서의 공간화(spatialization of social order)이며, 이는 도시재생, 유휴공간 활용, 정체성 회복 등의 과정에서 중요한 이론적 분석 틀을 제공한다.

르페브르는 공간을 감각적으로 체험되는 공간, 기획되고 표현된 공간, 상징적이고 내면화된 공간으로 나누며, 이를 통해 공간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작동하는지를 설명하였다. 이 세 가지 공간은 상호작용하면서 공간 재구성과 정체성 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음 <표 1>과 같이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을 제시한다.

[표 1]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

공간 유형	정의
물질 공간 (Physical Space)	물질 공간은 도시 거리, 건축물, 공장, 자연경관 등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실재 공간을 의미한다.
정신 공간 (Mental Space)	정신 공간은 지도, 도시계획, 문학, 상징 시스템 등을 통해 구성된 추상화된 개념 공간이다.
사회 공간 (Social Space)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동적 공간 즉 공간과 사회적 관계가 상호 구성되는 역동적 장을 의미한다.

20세기 중반 1960년대의 도시 공간 재생은 일종의 운동 형식으로써 구미 나라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도시 공간 재생은 노후화된 도시 구역과 건축 경관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현대화된 도시로 만드는 것이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관련 이론이 발전함에 따라 도시 공간 재생에 포함된 내용과 방식이 새롭게 변화하였다. 도시 공간 재생은 도시 기능, 구조, 생산 구조, 토지 이용에 대한 조절과 최적화, 그리고 지속적인 역사적 변화 발전의 과정으로서 중요한 옛 도시에 대한 보호, 복구, 재건, 재개발 등 여러 가지 방면의 내용이 포함되었다(Cheng, 2015, p.99). 각종 유휴공간에 대한 재이용은 문화 측면에 대한 토론일 뿐만 아니라 인문 환경 재건의 중요한 과제이다(우커스, 김주연,2019).

옛 건축 공간에 대한 재생 디자인은 공간형식의

창조, 건축 이미지와 환경 예술 디자인에서의 시도이자 여러 가지 방면의 품질(관념, 생활, 기억, 심미 등)과 여러 가지 측면의 지식(건축, 환경,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등)에 대한 검증이다(Ding & Guo, 2009, p.96).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역사에 대한 탐구일 뿐만 아니라 역사 환경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는데 양자의 "조화"는 공간 재생 디자인의 기초이며 양자의 "공생"만이 공간 재생 디자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우커스, 김주연,2019). 재생 공간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래에 <표 2>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 재생 공간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주제	연구 내용
최호정 이명식 (2024)	시간의 개념을 통해 살펴본 재생건축에 대한 연구 -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재생건축을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Transforming)는 재생건축의 특성 중 역사성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공간에 집중하는 디자인을 제시한다. 앞서 축적 및 연속에 의한 것은 기존 건축물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재생건축은 과거 시간의 보존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흐르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 기능, 건축요소를 기반으로 또다른 공간을 구성한다.
전성숙 (2023)	몸의 현상학과 혼종성 관점의 재생공간 해석연구	공간재생은 과거의 흔적을 보존함과 동시에 새로움을 덧씌우는 작업의 결과로, 변증법적 지양을 선행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혼종의 공간이다.
최염 방문박 (2015)	도시 공공 공간의 재생디자인에 관한 연구	공공공간에 대한 재생 디자인은 일종 건축과 도시 디자인 범위에 속하는 디자인 행위이고 그 서비스 대상은 자연과 사회적 속성을 갖춘 "사람"이다. 이는 건축과 도시 디자인에 기술과 인문학 등의 방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천욱 (2009)	구(舊) 산업건축(군) 재생 이용 이론 및 실증 연구	건축 재생은 하나의 창조 행위로서 과거를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의 건축에 오늘날 사회가 부여하는 시간 감각을 남기는 것이어야 한다. 시간 감각은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느끼는가이다. 다른 연령과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다를 수 있다. 지금 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 감각을 느끼도록 할 것인가가 바로 재생 디자인의 중요한 도전이다.
인민일보 (2023)	도시 재생 행동 시행 보고서	도시 재생이 건축물의 재생과 개조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 공간 환경, 문화 환경, 시각 환경 및 여가 환경 등의 개조와 지속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ohn Wiley& sons	Encyclopedia of architecture :design,engineering&construction	공간 재생은 원래의 건축물을 전환하거나 개조하여, 다양한 정도로 유휴 공간의 역사적 특성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내용과 사용 방식에 적합하도록하는 것이다.

위에 선행연구를 따라 특히, 하드웨어적 재생에 치우친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며, 재생 공간이 관광 소비를 위한 전시적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도 존재한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지역 공동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해온 전통 공예와 문화 실천을 공간 재생의 중심으로 삼고자 한다. 전통 공예 기반의 문화 생산을 중심으로 한 공간 재생은 기존 도시 재생 담론에 '생활 문화 기반의 실천적 재생'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향후 다양한 지역 재생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대안적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석수빈(2024)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다음 <표 3>과 같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정리하여 공간 재생을 기반 공간생산이론을 재구성을 한다. 이 삼중 구조는 도시 재생이 단지 외형의 변화가 아닌, 사회적 실천과 권력 관계, 상징적 경험이 중첩되는 다층적 과정임을 보여준다.

[표 3] 공간 재생을 기반 공간생산이론

공간유형	개념
실재적 공간	일상 속에서 신체적 활동을 통해 체험되고 활용되는 물리적 공간으로, 사회적 실천의 장이다.
기호적 공간	도시계획가나 디자이너가 설계도나 계획문서상에서 구축한 추상적이고 기능 중심의 공간이다.
함축적 공간	사용자의 감정, 기억, 상징을 통해 해석되는 주관적 공간으로, 사회적 내러티브와 감각적 경험이 축적되는 장소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간을 단지 기능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억과 실천, 문화적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장으로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현대의 공간 재생은 공공성, 참여성, 다층적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는 공간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로 확장되는 문화적 실천의 핵심 기반이 된다.본 연구에서는 이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향후 제시할 지역 문화 생산 기반 공간 재생 모델의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고자 한다.

2-2. 문화생산이론에 대한 이해

문화생산이론은 문화가 단순히 소비되는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경제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실천적 과정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도시 공간 재생, 지역 정체성 회복, 그리고 창의적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 주도형 공간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문화장(field of cultural produc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문화가 자율적 영역이 아닌 사회 구조 내에서 권력과 자본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문화 생산이 단순한 창작 활동이 아니라, 지배구조와 상징 자본의 경합,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재구성하는 장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Born(2010)은 부르디외적 접근을 확장하여, 문화생산을 설명하는 이론은 미학과 문화 대상(aesthetics and the cultural object), 주체성 및 실천성(agency and subjectivity), 제도와 제도적 맥락(the place of institutions), 역사성과 시간성(history, temporality and change), 가치 판단(value and judgement) 총 다섯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재구성(reinvention)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일한 생산 구조를 넘어서, 문화의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고 공간에 축적되는지에 대한 복합적 설명틀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문화와 전통 기술이 공간 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주민들의 정체성과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한편 Gibson(2003)은 문화산업이 단지 경제 활동을 넘어서, 도시 재생 및 지역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음악, 시각예술, 영화와 같은 창의적 활동은 지역의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 창조성, 장소성(place-making)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창조적 문화산업의 공간적 배치와 활동은 문화의 실천성과 생산 구조를 공간 내에서 시각화하는 역할을 한다.

관광 및 정책 차원에서도 문화생산의 중요성은 강조된다. Debeş(2011)에 따르면, 문화관광은 단순한 시청각적 경험을 넘어 지역 고유 문화의 정체성과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존하고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정책결정자가 문화의 가치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거나, 그 진정성을 회복하려는 전략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지역 고유의 문화는 점차 소외되거나 상업화로 인해 소멸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처럼 문화생산은 단지 문화 상품의 제작을 넘어, 지역성과 문화적 유산을 통합적으로 재현하고 계승하는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의 공간 재생 논의에서는 문화생산이 물리적 공간의 활용 → 기획적 구조화 → 상징적 재현으로 이어지는 다차원적 과정과 긴밀히 연계됨이 강조된다. 특히 전통 기술, 지역 예술, 공동체 서사와 같은 로컬 문화 자산이 단순한 보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재생의 매개로 기능할 수 있음이 주목받고 있다.

[표 4] 데페이즈망 기법의 유형

기법의 명칭	기법의 내용 (스타일: 표 내용)
주체 중심의 문화 실천	주민, 장인,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전통 기술 및 지역 활동을 문화생산의 주체로 간주하고, 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실재적·실천적 공간으로 정의한다.
정체성 기반의 공간 기획	지역 고유의 문화 요소가 공간 기획에 반영되어 시각적·구조적 상징성을 지니게 되는 과정을 문화생산의 기호적 차원으로 본다.
기억과 서사의 상징화	지역 사회의 역사, 감정, 경험이 공간 안에서 재현되고 축적되는 방식은 함축적 공간과 결합된 문화생산의 결과로 이해된다.

<표 4>와 같이 본 연구는 문화생산이론을 기반으로, 주체 중심의 문화 실천, 정체성 기반의 공간 기획, 기억과 서사의 상징화라는 세 가지 층위를 통합하여, 공간의 재생 과정에서 문화생산이 어떻게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 주민, 전통 장인, 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문화 실천이 공간 구조와 장소 정체성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해명함으로써, 지역문화 기반 공간재생의 이론적 기반을 강화시켰다.

2-3. 지역 문화 생산 기반 재생 요소 제시

공간 재생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외형을 개선하거나 기능을 변경하는 차원을 넘어, 공간에 축적된 역사성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주민의 체험과 감정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실천 과정이다. 본 연구는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을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가 공간 재생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세 단계로 정리하였다. 이 세 단계는 각기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작용하는 구조로, 공간의 생산과 문화의 재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다층적 흐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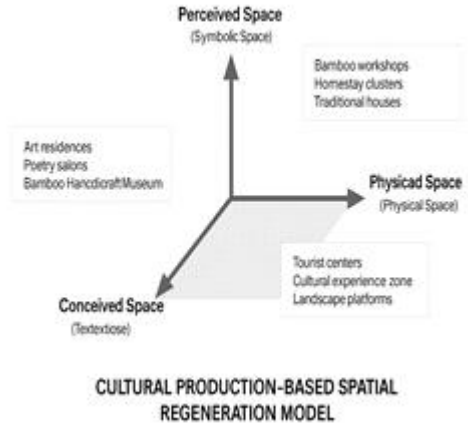
[표 5] 공간 재생을 기반 문화공간생산이론

공간유형	개념
문화자원 기반 실재적 공간	공간은 지역 주민의 신체적 실천을 통해 사용되고, 문화자산은 노동과 제작 행위를 통해 전승된다. *예: 기술 공방 및 제작실, 워크숍 공간, 공유 창작 공간, 지역 특산물 판매장 및 로컬 마켓*
상징의 구조화된 기호적 공간	공간은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정책 기획을 통해 재구성되며, 문화는 정체성의 상징으로 배치된다. *예: 지역 상징물 및 안내 시설 (문양, 표지판 등), 테마 거리 및 관광 동선 설계, 문화 해석 센터 및 전시 공간, 공공 조형물 및 전통 상징이 반영된 휴게 공간*
집단 기억과 감정의 함축적 공간	주민 개인 또는 공동체의 감정, 기억, 해석을 통해 상징적으로 구성되는 공간.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기억이 축적되며, 스토리텔링, 참여, 예술적 해석 활동등을 통해 재생산된다. *예: 마을 기록관 또는 구술사 전시 공간, 세대 간 기억을 공유하는 문화 커뮤니티 공간, 주민 자서전 전시, 마을 아카이빙 프로젝트 공간, 기억을 반영한 상징 벽화 또는 추모 공간*

1) 문화자원 기반 실재적 공간: 실재적 공간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신체적 행위를 통해 직접 사용하고 경험하는 공간으로, 재생의 출발점이 되는 물리적 기반이다. 이 공간에서는 지역 고유의 전통기술과 문화자원을 실천적으로 계승·활용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은 전통적인 문화 및 기술을 활용하여 공예품을 제작하고, 이를 관광객에게 시연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활동은 공간을 단순한 소비의 장소가 아니라 문화 실천의 공간 장소로 전환시키며, 지역 문화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2) 상징의 구조화된 기호적 공간: 기호적 공간은 도시계획가, 디자이너, 행정기관 등 전문가 집단이 설계하고 조직한 공간으로, 기능성과 상징성이 동시에 내포된다. 이 단계에서는 지역 문화가 공공디자인, 공간 브랜딩, 관광 콘텐츠의 형태로 기획되고 시각화된다. 예를 들어,마을 진입부의 조형물, 대나무 문양이 반영된 안내 표지판, 지역 문화 및 특색 산물 테마를 반영한 거리 디자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획은 관광객에게 지역의 정체성을 명확히 전달하는 한편, 내부 주민들에게도 문화적 자긍심을 부여한다.

3) 집단 기억과 감정의 함축적 공간: 함축적 공간은 사용자의 감정, 기억,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상징적이고 주관적인 공간이다. 공간은 단순한 기능적 배치 이상으로, 세대 간의 경험이 축적되고 공동체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장소로 변모한다. 지녁 주민들이 과거의 이야기, 가문 전통, 공예 유물을 아카이빙하거나, 구술사 형식으로 보존하는 활동은 이러한 함축적 공간의 대표적 예시이다. 또한, 주민 주도의 마을 기록관, 회고 전시, 공동 기억 공간 등은 이 함축적 공간을 시각화하고 공론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CULTURAL PRODUCTION-BASED SPATIAL REGENERATION MODEL

[그림 1] 공간 재생을 기반 문화공간생산 모델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 재생의 요소(물리적 요소, 기능적 요소, 상징적 요소)는 이후 사례 공간에 대한 구조적 분석의 기준으로 기능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르페브르(H. Lefebvre)의 '공간의 삼중 구조 이론(지각된 공간, 표상된 공간, 생활공간)'과 문화공간 생산 이론(재현→실천→상징)의 단계론을 결합한 분석 프레임을 수립하였다.

첫째, 물리적 요소는 '지각된 공간(perceived space)'에 해당하며, 공간의 시각적 구조, 재료, 건축적 형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는 현장 관찰, 건축도면,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실측 가능하며, 공간의 공공성, 가시성, 접근성 등의 지표로 구성된다.

둘째, 기능적 요소는 '표상된 공간(representations of space)'에 해당하며, 공간에 부여된 목적, 용도, 운영 체계 및 이용자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관련 정책 문서, 운영 자료, 이용자 인터뷰 등을 통해 기능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상징적 요소는 '생활 공간(lived space)' 및 '상징적 재현'에 해당하며, 주민 및 방문자들의 기억, 정체성, 문화적 경험을 포괄한다. 이는 설문조사, 인터뷰, 구술자료, SNS 텍스트 분석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틀을 기반으로 각 사례 공간(죽예촌 내 공간 유형들)에 대한 3차원적 해석을 진행하며, 공간이 지닌 복합적 가치와 문화적 장소성의 생성 과정을 단계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세 단계는 각각 다른 공간 유형에 대응되지만, 실제로는 순환적이고 동시적인 실천 구조를 형성한다. 실재적 공간에서의 물리적 실천이 기호적 공간의 기획과 상징화를 이끌고, 그것은 다시 함축적 공간에서의 체험과 기억을 통해 정체성으로 재해석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는 단순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살아 있는 자산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향후 죽예촌 사례 분석뿐 아니라, 다른 지역 공간 재생 전략에도 적용 가능한 이론적 모델로서의 보편성을 가진다.

3. 중국 죽예촌의 공간 재생 사례 분석

3-1. 죽예촌의 배경 및 선정이유

죽예촌(竹藝村)은 본래 '룽황촌(龍黃村)'으로 불렸으며, 중국 쓰촨성 청두시 충저우시 다오밍진(道明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오밍 죽편(道明竹編)'의 주요 발상지로, 풍부한 대나무 자원과 뛰어난 수공예 기술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 동안 명성을 유지해왔다. 주민들은 대나무에 의존하여 생활해왔으며, 대나무를 활용한 생활도구 제작은 마을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3].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플라스틱, 스테인리스와 같은 산업 재료가 보편화되면서 전통 죽편 산업은 급격한 쇠퇴를 겪게 되었다. '대나무의 고향'으로 불릴 정도로 풍부한 자연 자원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착된 생활 기반형 전통 기술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죽예촌(중예촌)은 2,0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죽공예 기술을 기반으로 공간 재생과 문화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문화재생 담론에서 강조되는 '전통의 현대적 계승' 및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생태계' 구현 측면에서, 죽예촌은 물리적 공간 개선에 그치지 않고 문화 생산과 주민 참여, 디자인 연계 산업의 집적이라는 통합적 모델을 구현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죽예촌을 중심 사례로 선정하여, 이 공간이 어떻게 문화생산을 매개로 공간 재생을 실현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죽예촌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지역 문화 생산의 대표성: 죽예촌은 단순히 전통 공예를 보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 참여와 지역 자원의 재발굴을 통해 문화가 실제로 '생산'되는 역동적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나무를 중심으로 한 전통 기술과 현대적 디자인이 융합되어 3,000종 이상의 죽공예 관광상품이 개발되었으며, 60여 명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와 100여 명의 죽공예 장인, 4,000여 명의 산업 종사자가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해외 예술가 레지던시와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부 문화 자원과의 접촉을 통해 지역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장·재구성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문화 생산 현장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화생산 이론과 정확히 부합한다.

성공적인 공간 재생 사례: 죽예촌은 유휴 산업 자원을 활용한 문화 중심의 공간 재생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관광, 창업, 예술, 정주 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복합적 재생 모델을 구현하였다. '죽리(竹里)' 건축 프로젝트는 지역 자원의 현대적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성과로 평가받으며, 국내외 전문가와 관광객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외에도 신촌민 유치,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 디자인 산업 육성 등의 방식으로 공간의 물리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기능도 재생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관광객 수는 128만 명, 관광 수익은 약 12.5억 위안에 달하며, 이는 문화 기반 재생이 실질적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공동체 중심의 참여적 재생 모델 구현 : 죽예촌은 단지 물리적 공간의 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외부 전문가의 협력 구조속에서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창조해가는 방식으로 재생이 이루어졌다. "회사 + 디자이너 연합 + 농촌계획가 + 주민"의 4자 협의체는 문화 자원의 재발굴, 경제적 가치 창출, 공동체 내 갈등 조정 등 다양한 과제를 유기적으로 통합했다. 중예촌은 실재적 공간(재래시장, 공방), 기호적 공간(디자인된 관광 경로, 상징적 조형물), 함축적 공간(주민 기억, 창작 활동)을 모두 포함하며, 르페브르의 공간 생산 3요소에 적합한 분석 구조를 제공한다.

3) 중국 청두시 정부 공식 홈페이지, (2025.07.09.), www.chengdu.gov.cn/cdsrmzf/

3-2. 죽예촌의 공간 및 역사적 맥락

죽예촌은 청나라 시대부터 죽공예의 중심지로 알려졌으며, 지역 주민들은 대를 이어 대나무를 활용한 생활용품, 농기구, 장식품을 제작해 왔다. 특히 도밍진 일대는 사천성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죽림 지역으로, '대나무 마을'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역사적으로도 대나무와 밀접한 공간이다. 2016년 이전까지 해당 지역은 전반적인 기반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으며, 마을에는 주로 노인과 여성, 아동만이 남아 있었다.

죽편 기술은 여전히 가내수공업 형태로 명맥을 이어갔지만, 관련 소득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기성 장인들의 고령화와 더불어, 젊은 세대의 이탈로 인해 죽편 산업은 점차 쇠퇴하였으며, 전통기술의 단절 우려도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생계 기반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외부 방문객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가 추진되었다.

[그림 2] 죽예촌 지리도

아래 [표 6] 죽예촌의 공간 및 역사적 맥락과 같이 죽예촌의 공간 재생은 단순한 지역 정비 차원을 넘어, 지역 고유의 전통기술과 문화자산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7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죽공예는 지역 정체성의 핵심으로 자리잡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인 공간 재생 전략이 추진되었다[4].

2017년 대표 건축 프로젝트인 「죽리」를 시작으로, 국내외 예술가의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신촌민 유입 정책이 더해지면서 마을은 예술·관광·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5].

2023년에는 연간 관광객 128만 명, 관광 수익 12.5억 위안을 기록하며, 문화생산 기반 공간 재생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6]. 죽예촌은 이처럼 전통과 현대, 지역성과 세계성이 공존하는 유기적인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 문화 생산 기반 공간 재생 모델의 실증적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표 6] 죽예촌의 공간 및 역사적 단계 맥락

단계	연도	주요 사건 및 공간 변화	내용
1단계: 초기 탐색기 2007-2017	2007년	도밍진 대나무 공예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보호 정책 본격화	공간 전략: '집 철거 금지, 나무 제거 금지, 연못 매립 금지'의 3무 원칙수립.
	2014년	도밍진 중심으로 '죽예촌' 공간 재생 기획 시작 → 전통 대나무 공예 마을에서 문화 클러스터 구상	
	2017년	〈죽리(竹里)〉 건축 프로젝트 시작: 지역 자재 활용, 전통과 현대 융합의 대표적 공간 디자인 사례로 주목	
2단계: 급속 성장기 2018-2020	2018년	국내외 예술가 초청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시작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 참여)	성과지표: 2021년 관광 수입 1.9억 위안, 온라인 죽공예 매출 3,600만 위안 돌파.
	2019년	'신촌민 계획' 시행: 시인·전통예술가·한학 강사 등 100여 명의 창조적 인력 유입	
	2020년	3000여 종 죽공예 상품 출시, 관광 연계형 창작산업 모델 가동	
3단계: 고도화 단계 2021~	2023년	방문객 128만 명, 관광수익 12.5억 위안 달성 →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본격화	모델화: 정부+국유기업+주민지분+민간 자본의 복합적 투자 구조 정착.
	현재	죽예촌은 대나무 공예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관광·교육 클러스터로 정착, 문화생산 중심의 공간 재생 대표 사례로 부각	

죽예촌은 공간 재생 사업 이전과 이후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 수치의 변화가 나타났다:

[표 7] 죽예촌의 관광객·소득 변화 비교

항목	2017년 기준	2023년 기준	변화율
관광객 수	약 64만 명 추정	128.6만 명	+100%

4) 四川省人民政府新闻办公室. (2023). 《成都市崇州市"竹艺村"非遗空间再生发展白皮书》.

5) 왕잉(王莹), '중국 죽예촌 대나무 공간 재생 사례 분석과 한국 죽녹원 재생 가능성에 대한 비교 연구', 건축과 도시공간연구, 2022. Vol.21, No.3, p.44-59.

6) 央广网, (2024.01.15.), sc.cnr.cn/scpd/hygc/20250626/t20250626_527230421.shtml.

관광 수익	약 5.2억 위안 추정	12.55억 위안	+141%
죽산업 생산액	약 2,926만 위안	7,020만 위안	+140%
마을 공동체 수익	약 119만 위안 추정	285.6만 위안	+140%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약 1.5만 위안	3.6만 위안	+140%

이러한 실질적 수치의 증가는 단순한 물리적 재정비가 아닌, 문화자원과 디자인 기반 콘텐츠가 결합된 복합적 재생 전략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죽예촌은 전통적 자산인 죽공예를 기반으로, 비전 계승과 문화 창업, 주민 주도형 경제 모델, 공공디자인 전략이 융합된 사례로, 공간 재생의 전략적 가치와 실천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정책 도입 시기와 성과 지표를 통해 본 공간은 이론적 분석의 기준점이자, 향후 대나무 공간 재생 모델 개발의 토대가 된다.

3-3. 문화 생산 기반 공간 재생 모델의 적용 분석

죽예촌은 전통적인 대나무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서, 물리적 재생뿐 아니라 지역 문화자산의 발굴과 창의적 해석을 통해 문화 중심의 공간 재생을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죽예촌은 단순한 물리적 재생을 넘어,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층적 공간 재생을 실현해왔다. 이는 공간을 '생산'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공간 생산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하며, 특히 지역 문화자산의 내재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문화공간생산'의 틀에서 해석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죽예촌을 문화자원 기반 실재적 공간, 상징의 구조화된 기호적 공간, 집단 기억과 감정의 함축적 공간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 과정은 [표 5]에서 제시된 문화공간생산이론의 세 가지 공간 유형에 뚜렷하게 대응된다.

3-3-1. 문화자원 기반 실제적 공간

죽예촌은 지역 주민의 전통기술과 생산 행위를 활용하여 '살아 있는 문화 공간'으로 재생되었다. 마을 곳곳에 위치한 대나무 공방, 워크숍 공간, 공동 창작실 등은 지역 장인과 주민들이 실제로 작업하고 생산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기능하며, 이들은 단순한 관광지 이상의 '생산적 공간'이다.

예를 들어, 전통 대나무 공예 기술을 계승한 공방에서는 현지 장인이 참여하는 체험형 워크숍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공방에서 생산된 대나무 제품은 지역 특산물로서 현장 판매 또는 온라인 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기술이 문화자산으로 활용되면서, 공간은 주민의 신체적 실천이 구현되는 문화 생산의 실재적 기반으로 작동한다

.

[표 8] 죽예촌의 문화자원 기반 실제적 공간

이름	사진	설명
제5 공간		제5공간은 단순한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의자 등의 기초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이용, 충전, 공과금 납부, 택배 수령, 아동 놀이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이 공간은 일상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이 잠시 머무르고 휴식할 수 있는 따뜻한 문화 거점으로 기능하며, 공공공간의 인간 중심적 배려와 복합적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있다.
삼경 서점		삼경서점은 오래된 가옥을 개조한 공익 서원으로, 독서와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규모는 작지만 강한 문화적 에너지를 지니며, 강연·북사인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 확산과 인문 소통의 거점으로 기능한다.
내거 주점		내거주점은 야외 공간에서 음식, 커피, 숙박, 휴식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복합형 주점이다. 대나무 숲 속에서 차를 끓이며 술을 마실 수 있어 자연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민박		무근산 중턱에는 숲속에 흩어져 있는 8개의 독립형 호텔식 객실이 자리잡고 있어 자연 속 야외 정원을 이루고 있다. 현지 수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일부 나무는 실내를 관통하며, 창 너머로 나무를 감싸는 구조가 인상적인 건축과 자연의 공존을 보여준다.
상업 거리		죽예촌 상업거리는 대나무 공예 문화상품, 지역 특색 음식, 수공예 체험 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지역 문화를 체감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핵심 장소이다.
체험관		죽공예 체험관은 무형문화유산인 대나무 공예의 깊은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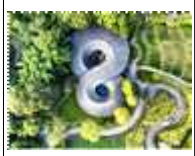
		체험을 통해 방문객이 대나무 공예의 매력과 따뜻함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다.

3-3-2. 상징의 구조화된 기호적 공간

죽예촌은 체계적 공간 기획을 통해 문화적 상징성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와 설계 전문가, 예술가들이 협력하여 '죽리(竹里)' 건축군을 설계한 과정은 도시계획 및 공공디자인을 통해 공간에 새로운 기호를 부여한 전형적인 구조화된 상징 공간 형성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죽예촌의 '관광 안내 센터', '문화 해석관', '주제 거리' 등은 외부 방문자에게 마을의 전통과 가치를 전달하는 '설명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 공간들은 정보의 시각화, 표지판, 동선 계획 등을 통해 방문객이 마을의 문맥을 인지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표 9] 죽예촌의 상징적 공간

이름	사진	설명
판다 레스토랑		판다 레스토랑은 죽예촌 건축 미학의 상징으로, 대나무 編(편) 장식과 대나무 계단이 가장 유명하다. 부드러운 선과 따뜻한 노란빛이 어우러져 포근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죽리 竹里		독특한 '∞' 형태의 건축 디자인은 무한한 창의성과 융합 가능성을 상징한다. 이곳에서는 전통 천서 민가의 소박한 분위기와 현대적인 유선형 예술 요소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전통 건축의 질감과 인문적 정취를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 디자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담아내어 지역성과 미래지향성을 동시에 갖춘 신중식 건축의 모습을 보여준다.
입구 설치		죽예촌 입구에 설치된 세 마리의 대형 대나무 판다 조형물은 대나무를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엮어 만든 예술 설치물로,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조형물은 국가무형문화재인 '도명죽편'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통 수공예와 공공 예술의 융합이 지닌 매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박물관		죽예촌 박물관에는 장인들이 정성껏 제작한 다양한 대나무 공예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자연 소재인 대나무의 감성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이곳은 죽편 문화와 무형문화유산 기술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견외 미술관		견외 미술관은 청기와와 흰 벽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외관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는 현대적 감각으로 설계되어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전시 공간을 자랑한다. 넓고 밝은 실내에는 창의성과 생동감이 가득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죽예공원		이곳은 무료로 개방된 복합 공원으로, 산책, 식음료, 여가 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공원 내에는 경전철, 판다 레스토랑,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사진 촬영 명소로도 인기가 높으며, 가족 나들이와 자연·문화를 함께 즐기기에 이상적인 장소이다.

3-3-3. 집단 기억과 감정의 함축적 공간

죽예촌은 '죽예촌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시각화하는 공간을 구성하였다. 마을 벽화, 사진 전시, 시 낭송 공간 등은 단순한 예술 요소를 넘어, 주민의 정체성과 감정이 담긴 집단적 기억의 상징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예를 들어, 마을 내 '기억의 담장' 프로젝트는 여러 세대의 기억을 모아 벽화로 표현한 사례로, 이는 공간에 감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공동체의 연대를 시각화한 중요한 문화적 실천이다. 또한 시인, 예술가, 철학자 등 다양한 '신(新)주민'의 참여를 통해 감정 해석과 기억의 전시가 이루어지면서, 이 공간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감성적 교류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표 10] 죽예촌의 문화자원 기반 함축 공간

이름	사진	설명
장터		죽예촌의 장터는 마을 주민들

		이 손수 만든 대나무 공예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나무 제품 외에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과일과 채소를 판매하며, 이곳은 단순한 거래의 공간을 넘어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공동체 공간이기도 하다.
공예 작업실		마을의 대나무 공예 작업실은 두 채의 전통 가옥을 개조하여 조성되었으며, 마을 장인들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대나무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소쿠리, 키, 광주리, 체 등 크고 작은 전통 생활용품이 가득하고, 심지어 실내의 들보 장식까지도 모두 주민들이 손수 짠 대나무로 마감되어 대나무촌의 깊은 수공예 전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장인 작업		이곳에서 대대로 살아온 대나무 공예 장인들은 지금도 마을에 거주하며, 관광객들에게 정교한 대나무 공예 기술을 직접 시연해 보이며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이어가고 있다.
공예 혁신		죽예촌은 중앙미술학원의 전통공예 워크스테이션을 유치하여 대나무 공예 연구 및 창작이 이루어지는 메이커 공간을 구축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건축, 의류, 장식, 문화상품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브로치, 귀걸이 등 300여 종의 트렌디한 패션 제품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여 전통 공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죽예촌의 다양한 공간 시설과 문화 기반 건축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간 재생이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서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감성적 장소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공방, 체험관, 미술관, 서원, 민박, 야외 주점, 상가 거리, 전통시장 등 다양한 공간들은 각기 다른 문화생산 활동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주민의 생활과 생산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자에게도 몰입적이고 지속적인 문화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체험-재생산'의 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앙리 르페브르의 '물질 공간-정신 공간-사회 공간' 3차원 구조에 비추어 보면, 죽예촌은 공간 재생 과정에서 세 가지 공간 유형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 내재화를 중심으로 한 공간 생산 이론의 실천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4. 대나무 공간 재생의 적용 방안 개발

지속가능한 지역 공간 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넘어, 지역 고유의 문화와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 반영된 재구성 과정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전통과 현대, 일상과 예술, 생활과 생산이 융합되는 공간은 단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감성적 공감대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죽예촌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공간 생산 이론(Physical-Mental-Social Space)과 문화생산 이론(3단계 모델)을 통합한 지역문화 기반 공간 재생 전략의 구성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1. 문화공간 재생의 실천 방향 및 프로세스 설계

지속가능한 지역 공간 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넘어, 지역 고유의 문화와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 반영된 재구성 과정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전통과 현대, 일상과 예술, 생활과 생산이 융합되는 공간은 단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감성적 공감대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생산이론(Physical-Mental-Social Space)과 문화생산이론(문화 자원의 해석-조성-확산의 3단계)을 종합하여 지역 문화에 기반한 재생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이 실행 모델은 죽예촌 사례의 실증 데이터를 근거로 구축되었으며, 물리적 공간의 정비를 넘어서 주민의 기억과 경험, 감성적 유대가 축적되는 '생산적 장소'로서 공간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공간 생산은 물리적 실체의 조성과 동시에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해석이 중첩되어야 한다. 르페브르가 제시한 실재 공간(Perceived Space), 기호 공간(Conceived Space), 함축 공간(Lived Space)은 각각의 재생 단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문화생산은 단지 자원의 소비가 아니라 해석 → 조성 → 감성

적 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재구성을 가능케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5단계 실행 구조를 제시하며, 각 단계는 죽예촌의 실천 사례와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된다.

[표 11] 문화공간 재생 프로세스

단계	내용
지역 문화자산의 발굴 및 해석 단계	
이론적 대응: Perceived Space / 문화생산 1단계(자원 해석)	
1단계	• 지역의 무형·유형 자산에 대한 정밀 조사 및 주민 인터뷰를 통해 재생의 '콘텐츠 원천'을 확보 • 특히 전통 기술, 이야기, 생활 방식, 장인 명단 등의 내재된 문화 DNA를 해석 가능하도록 아카이빙 죽예촌 실증 사례: 2023년 기준, 죽예촌은 전통 기술 보유자 62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속 구술사 100건 이상을 정리하여 공간 재생의 기초 콘텐츠로 활용하였다. 특히 '문화재형 예술마을'로 지정되며 국가 비물질유산인 '도명죽편'의 현대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다.
창의적 기획 및 복합 프로그램 설계 단계	
이론적 대응: Conceived Space / 문화생산 2단계(콘텐츠 조성)	
2단계	• 단순 복원에서 벗어나 현대적 감각과 결합된 융복합 기획 전략필요 • 전통 기술과 예술, 디자인, 건축, 관광, 교육 등의 분야를 융합하여 창의적 스토리라인 구축 죽예촌 실증 사례: 2018년 이후 '∞ 구조'로 설계된 공공건축물 '죽리(竹里)'를 중심으로 공간 상징성 확보. '죽공예×패션×건축' 등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3,000여 종의 죽편 기반 창작 상품 출시. 전통 기술이 단순 보존이 아닌, 현대 소비경제와 연결되는 기획 모델로 정착.
참여자 중심의 제작 및 조성 단계	
이론적 대응: Social Space / 문화생산 2단계 연장	
3단계	• 마을 주민, 장인, 예술가, 기획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치형 조성 모델이 필요 • 기존 공간의 일부를 공동체 워크숍, 시민 제작 프로그램, 참여형 공모 등으로 설계 죽예촌 실증 사례: 2022년 이후 '신(新)마을인' 레지던시 입주자 27명 유치, 주민 재정착률 50% 이상. '공간공유 회의', '살롱토크',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공동 창작 기반 확보. 장인과 예술가 간 기술 협업 구조 운영을 통해 일자리 및 콘텐츠 동시 창출.
운영 기반 구축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단계	
4단계	• 공간은 완성 이후에도 운영 주체, 수익 모델, 관리 체계등과 연결되어야 실질적 지속 가능성 확보 가능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역재단 등 지역 밀착형 운영 주체 설립 및 역량 강화 필요 죽예촌 실증 사례: 2023년, '죽예촌문화예술공동체' 설립, 지역 브랜드 상품화 및 유통 채널 확보. 2023년 기준 마을 집단 경제 수익 285.6만 위안 달성, 1년 사이 1.7배 성장. 전통 체험비, 숙박·관광 수익, 예술가 입주비 등 다원적 수익 구조 실현.
경험의 확장과 감성적 소통 활성화 단계	
이론적 대응: Lived Space / 문화생산 3단계(확산 및 감성 정착)	
5단계	• 공간 재생은 단순히 물리적 완공이 아닌, 경험의 재구성과 정서적 연결을 통한 관계 형성이 핵심 • 스토리텔링, 전시기획, 체험 프로그램, 예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장소성과 정체성을 감각적으로 각인 죽예촌 실증 사례: '죽편일기 체험', '밤의 대숲 산책', '대나무로 쓰는 편지' 등 정서적 연계 콘텐츠 확산. SNS를 통한 콘텐츠 확산 100건 이상, 연간 체험 콘텐츠 참여자 수 25만 명 달성. 주민과 방문자 간의 문화적 연대 형성 촉진.

본 장에서는 죽예촌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 자원과 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공간 재생의 실행 프로세스를 구체화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제안하는 '문화생산 기반 공간 재생' 5단계 모델은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서 지역 정체성, 공동체 회복, 문화적 감수성의 회복까지 포괄하는 실천 구조이다.

다만 죽예촌의 성공은 대나무라는 특수 자원, 중앙 예술기관의 협력, 대규모 공공투자 등의 특수 조건에서 가능했던 측면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원 구조 및 사회문화 조건을 가진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모델 조정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문화생산 기반 공간 재생' 모델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지역문화의 해석 → 융합 기획 → 주민 참여 조성 → 지속 운영 → 감성적 확산이라는 5단계 실행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은 생산과 소비, 체험과 해석이 공존하는 문화적 실천의 장으로 전환되며, 이는 향후 유사한 지역에 적용 가능한 재생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실천적 고찰을 바탕으로, 죽예촌 사례를 통해 확인된 문화 재생 전략의 확장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향후 지역 기반 문화 공간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5. 결론

본 연구는 지역 고유의 비가시적 자산인 전통문화와 장소성을 중심으로, 공간 재생의 대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간생산이론과 문화생산이론의 융합을 바탕으로 '문화생산 기반 공간재생 모델'을 제안하고, 중국 쓰촨성 죽예촌 사례를 통해 그 이론의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공간 재생 담론이 단순한 물리적 정비 또는 기능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는 비판적 인식을 넘어, 본 연구는 문화적 장소성과 공동체 경험이 공간 구성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주목하였다. 특히 르페브르의 3차원 공간 생산 이론(실재적 공간-기호적 공간-함축적 공간)은 단순한 구조론이 아니라, 현대적 지역재생 담론과 연계 가능한 확장 이론으로서 본 연구의 이론적 틀로서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소자(Soja)의 제3공간 개념과 하비(D. Harvey)의 장소 정치학적 논의를 부분적으로 참조하여 공간의 정치성·상징성·감성적 층위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가능함을 보였다.

둘째, 죽예촌의 공간 재생 사례는 단순한 관광 활성화를 넘어, 전통기술의 현대적 전환, 지역민의 주체적 참여, 공공디자인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생산 기반 공간재생의 현실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입증하였다. 예컨대, 2023년 기준 관광객 수 128.6만 명, 관광수익 12.55억 위안, 죽산업 관련 상품 개발 3,000종 등은 문화적 장소성이 경제적 재생으로 전이된 구체적 결과를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모델은 지역 정체성 회복과 공동체 재생이라는 공간 재생의 핵심 가치를 강조한다. 특히 함축적 공간 구성에서 나타나는 주민의 기억·정서·일상성은 공간을 '사용'의 대상이 아닌 '생산'의 장소로 전환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며, 이는 단기적 공간 개조를 넘는 지속가능한 재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학문적·실천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으로는 공간생산이론의 정합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생산 개념을 융합함으로써 지역문화 기반 공간재생 분석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였다. 실천적으로는 죽예촌 사례를 통해 전통문화의 현대화, 지역 참여형 경제전환, 상징 공간 구성이라는 복합 전략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고, 이는 한국의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마을에도 적용 가능한 현실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과제로는, 다양한 문화유형과 공간 스케일에 따른 적용 타당성 검토, 정책적 개입이 공간 생산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 주민 참여 방식에 따른 정체성 형성 과정 등 보다 미시적이며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Bourdieu, P,『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Essays on art and literature. R. Johns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2. John Wiley & sons, 『Encyclopedia of Architecture,Design,Engineering&Construction』, Encyclopedia of Architecture, 1988
3. Ward, J., Hubbard, P, 『Urban regeneration through culture. InHandbook of Urban Geography』, Edward Elgar Publishing, 2019
4. 백우, 위가, '도시 재생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인민일보, 2023.10.24
5. 왕잉(王莹), '중국 죽예촌 대나무 공간 재생 사례 분석과 한국 죽녹원 재생 가능성에 대한 비교 연구', 건축과 도시공간연구, 2022
6. 전성숙, '몸의 현상학과 혼종성 관점의 재생공간 해석연구-산업유산 기반 문화공원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 2023
7. 최염, 방문박, '도시 공공 공간의 재생디자인에 관한 연구', 현대도시연구, 2015
8. 최호정, 이명식, '시간의 개념을 통해 살펴본 재생건축에 대한 연구-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재생건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2024
9. Born, G, 'The social and the aesthetic: For a post-Bourdieuian theory of cultural production', Cultural Sociology, 2010
10. Cole, R. J, 'Regenerative design and development: current theory and practice',

Building Research & Information, 2012

11. Debeş, T, 'Cultural tourism: a neglected dimension of tourism industry', Anatolia, 2011
12. Gibson, C, 'Cultures at work: Why culture matters in research on the cultural industries', Social & Cultural Geography, 2003
13. Smith, M, 'Space, place and placelessness in the culturally regenerated city', Cultural tourism: Global and local perspectives, 2007
14. Wilks-Heeg, S., North, P,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a special edition of local economy', Local economy, 2004
15. Xiong, X., Wang, Y., Pesoa-Marcilla, M., & Sabaté-Bel, J, 'Dependence on Mountains and Water: Local Characteristics and Regeneration Patterns of Rural Industrial Heritage in China'. Land, 2022
16. Xiong, X., Wang, Y., Pesoa-Marcilla, M., & Sabaté-Bel, J, 'Dependence on Mountains and Water: Local Characteristics and Regeneration Patterns of Rural Industrial Heritage in China', Land, 2022
17. Zeng, M., Wang, F., Xiang, S., Lin, B., Gao, C., & Li, J, 'Inheritance or variation? Spatial regeneration and acculturation via implantation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in Beijing's traditional compounds', Habitat International, 2020
18. 崔琰, 房文博, '城市公共空间再生设计研究', 现代城市研究, 2015
19. 천욱, 구(舊) 산업 건축(군) 재생 이용 이론 및 실증 연구, 시안건축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20. 陈旭, 旧工业建筑（群）再生利用理论与实证研究, 西安建筑科技大学, 博士学位论文, 2009
21. 白宇, 卫嘉, 都市再生让人民生活更美好, 人民日报, (2023.10.24)
22. 四川省人民政府新闻办公室, 《成都市崇州市"竹艺村"非遗空间再生发展白皮书》, (2023)
23. sc.cnr.cn
24. www.chengdu.gov.cn